

미래부, 23개 기초·원천기술 기업에 이전

입력시간 | 2013.11.13 11:17 | 김혜미 기자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한 23개 기초·원천기술 연구 성과가 기업에 이전된다.

미래부는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기초·원천 기술이전 및 양해각서 조인식’을 열고 연구성과 8건을 기술이전하는 한편 15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채종서 성균관대 교수팀의 ‘초소형·초절전 전자동 스마트 원형 가속기’와 김성훈 서울대 교수팀의 ‘폐암 항암제 후보물질 발굴’, 한세광 포항공대 교수팀의 ‘히알루론산을 활용한 간염치료’ 등이다.

미래부는 지난 7월 기초·원천 연구성과 중 74개 사업화 유망기술을 선정해 사업화 컨설팅과 수요기업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여개 기술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기술별로 2년간 최대 4억원의 후속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근재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관은 “내년에는 기초·원천 사업화 지원 예산을 6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지원 대상기술을 74개에서 150개 기술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합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